

주제: 우리의 미래생활을 변화 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AI)기반 아이디어

<인공지능 반려 식물>

윤미림

우리는 인공지능 기반 아이디어를 생각하기에 앞서, 인공지능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AI: Artificial Intelligence. 말 그대로 인공적인 지능을 말하며, 컴퓨터가 인간처럼 사고하고, 학습하고, 판단하는 논리적 방식을 활용하는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인공지능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면 낯설게만 느껴지는 사람이 더러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인공지능은 우리 일상 곳곳에서 인간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휴대폰 속 시리와 빅스비는 휴대폰 속 여러 기능들을 단지 음성으로만 해결해 준다. 구글 사의 알파고는 바둑 기사 이세돌을 이겼다. 웹 사이트에서 궁금한 내용을 검색하려 하면, 끝까지 입력하지 않아도 연관 검색으로써 자동 작성이 된다. 이외에도 인공지능은 여러 방면에서 일상에 녹아 인간을 돕고 있다.

내가 아이디어를 떠올리면서 겪은 어려움은, 오늘날이 4차 산업 혁명이 도래한 이후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상에 존재하지 않으나 '있었으면 싶은' 인공지능 아이템은 생각할 수 있었다. 지난 1년간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 23명에 달한다. 인간의 지능을 본 따 만든 인공물이 '사회안전망'으로써 되려 인간을 살린 것이다.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계층인 노년층을 위해 일부 시에서는 노인 가구에 무료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지원하기도 한다. 나는 우울증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극단적 선택이 매년 급증한다는 기사를 보고, 여성들 또한 현대사회에 있어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취약한 계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여성들을 위한 'AI 반려 식물'이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인간은 많은 부담감을 떠안아야 한다. 먹이, 용품, 의료비 등 경제적 요소와 자신의 부재로 인한 반려동물의 스트레스, 반려동물의 실수를 용인할 수 있는 인내심 등의 윤리적 요소 등 여러 요소들을 충족해야 책임감 있게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다. 때문에 보다 부담이 적은 반려 식물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주기적인 물 주기, 잎 관리, 분갈

이 등 반려 식물 또한 관리를 틈틈이 해줘야 하는, 어디까지나 '생명'이다. 최근 일본의 한 기업에서 2012년 3월 출시 예정인 AI 반려동물 '모플린(MOFLIN)' 펀딩을 시작했다. 모플린은 인형 같은 생김새에 9가지의 감정 상태를 갖고 있으며 마치 실제 양육을 하듯 환경에 따라 발전 방향이 달라지는, 즉 스스로 학습하는 반려동물이다. 실제로 움직이고 애교도 부리지만, 배터리 충전이 필요한 로봇에 불과하다.

나는 실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감내해야 할 부담감과 반려 식물 키우기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람들을 위한 AI 반려식물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인공지능 반려동물은 이미 존재할뿐더러, 움직이고, 스스로 학습하지만 어떻게 됐든 '양육'해야 하는 의무감이 전제되어 있다. 내가 고안한 인공지능 반려 식물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인공지능 스피커에 착안하였다. 하지만 그냥 스피커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경을 써줘야 하는 인공지능이다. "AI 반려 식물"은 케이블을 연결하여 상시 충전을 하고 있다. 집에 귀가했을 때, 집에 나가기 전 등 일상생활 중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오늘 날씨는 어때?", "오늘 업무가 너무 힘들었어" 등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다. 우리는 AI 반려 식물의 이름도 지어, 부를 수도 있다. 인공지능 반려 식물은 나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나에게 관한 정보를 빅데이터화하여 축적한다. 대화를 할 때 일방적인 나의 질문이 아닌,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내일은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해요" 와 같은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하다. 이 파리 모양의 디스플레이는 대화를 많이 할수록, 내가 AI 반려 식물에 많은 관심을 보일수록 새파란 색을 띤다. 대화가 적어지거나, 관심이 줄어들면 이파리 색깔이 노르스름 해지며, 생기를 잃어간다. 우울증 환자나, 고독사 위험이 있는 독거 노인들을 위한 '인공지능 말동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인공지능 반려 식물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식물의 상태가 변화하여 즉 진짜 '생명'을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을 일상 속으로 불러넣을 수 있다.

또 반려 식물을 기르는 주요 이유로 꼽히는 것 중 하나는 식물의 공기 정화 능력이다. 인공지능 반려 식물을 키우면, 위의 스피커 기능 말고도 공기청정기 기능을 겸할 수 있다. 사람이 출퇴근 시간 등의 귀가 시간을 지정하거나 예약 시간에 맞추어 작동하거나 공기 상태를 점검하며 기기가 스스로 공기 정화 기능을 작동시킨다.

덧붙이자면, 오늘날 인공지능이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렵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편리한 삶'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공지능은 장점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과연 인공지능의 무한한 발전을 인류가 통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자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인류는 인공지능과의 전쟁에서 처참히 패배하여, 인공지능의 에너지원으로 역이용된다. 이러한 사건의 발생이 단지 영화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라 말할 수 있을까. 또한 윤리적 및 도덕적 기준은 단순히 한 프로그래머가 잣대를 세울 수 없는 인류의 큰 특징이자, 자부심이다. 때문에 인류는 인공지능이 발달을 도모하되, 인공지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인간만의 대책을 세우고 이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인간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인과관계를 따져 책임을 묻거나, 응당한 의무를 지운다. 하지만 자율 주행 등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현재, 인공지능이 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윤리적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AI 기반 아이디어 산출도 좋지만, 그에 따른 대책을 함께 떠올리는 것도 인간의 불가피한 사명이 아닐까 생각한다.